

투데이 칼럼

상사화와 꽃무릇 이야기

요즘 고창의 선운산도립공원 입구에는 붉은 양탄자를 깔아 놓은 듯 아름다운 풍경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꽃이 있다.

그런데 오가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 꽃 이름에 대해서 욕심각심 하며 승강이를 하는 분들이 많다. 누구는 '상사화'라 하고 또 누구는 '꽃무릇'이라고 하며 어떤 이는 '석산'이 맞다고 하면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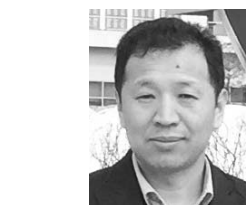
손 안의 요술봉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봐도 각각의 주장이 틀러 모두가 헛갈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식물은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석산(꽃무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석산(꽃무릇)은 분류하는 학자에 따라 다르나 수선화와 상사화속 7종의 식물중 하나이며, 이 상사화속 식물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별된다.

▲상사화

상사화속 식물 중 가장 빨리 개화하는 상사화는 7월말에서 8월중순에 개화하며, 자주색 꽃봉오리와 연 분홍색의 은은한 꽃잎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꽃은 피오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불갑산, 선운산, 내장산등의 사할 주변이 주요 서식지였으나,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 확산되고 있다.

'상사화'라는 꽃 이름은 잎이 다 진후에 꽃이 피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꽃이라는 뜻에서 유래



김형학 고창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지도행정팀장

하였다.

▲진노랑상사화

진노랑상사화는 진한 노란색 꽃으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식물 2급 보호종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선운산, 내장산, 불갑산에 자생하고 있으며, 개화시기는 7월말에서 8월 초순으로 빠른 편이다.

진노랑상사화의 꽃잎은 물결무늬를 지니고 있고 뒤로 약간 젖혀진 모습이 다른 상사화와 구별되며 상사화속의 식물로는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유성생식을 한다.

▲제주 상사화

꽃의 색상은 붉노랑상사화와 백양꽃의 중간정도이며 한국 특산종으로 개화시기는 8월 중, 하순으로 상사화 진노랑상사화 보다 조금 늦고 위도상사화, 붉노랑상사화보다 조금 빠르다.

▲위도상사화

부안군 위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위도상사화라는 고유명사를 가졌으며, 흰색의 수수하고 담백한 꽃이 매력적이다. 개화시기는 상사화보다 조금 늦은 8월 중순에서 하순사이이다.

▲붉노랑상사화

붉노랑상사화는 한국특산종으로 부안군 내소사 등지에 자생하고 있으며 꽃의 빛깔은 연노랑색이나, 붉은빛이 감돌기도 하여 붉노랑상사화로 불린다.

개화시기는 상사화와 진노랑상사화보다 조금 늦은 8월중순에서 하순이다.

▲백양꽃

조선상사화 또는 고려상사화라고 부르며 한국특산종으로 내장산 이남의 남부지방에서 자생하고 백양사에서 처음 발견되어 백양꽃으로 불린다.

진한 주황색의 꽃이 피고 꽃과 줄기의 크기도 다른 상사화속보다는

훨씬 작으며 개화시기는 8월말에서 9월 초이다.

▲꽃무릇

일본이 원산지인 꽃무릇 또는 석산이라 부르며 9월 중하순에 개화한다.

'석산(石蒜)'은 '돌마늘'이라는 뜻으로 볼 틈의 인경이 마늘과 닮아 지어진 이름이고 꽃무릇은 '꽃이 무리지어 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꽃무릇은 절 주변에 많이 심었는데 그 이유는 뿌리 인경에 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방부효과가 있어 사할의 불경이나 탕화의 보존 등에 쓰였기 때문이다.

고창 선운산에는 상사화, 진노랑상사화, 제주상사화, 꽃무릇이 자생하거나 식재되어 있고, 꽃무릇이 개화하는 시기에는 이 붉은 양탄자 같은 꽃을 보러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하지만 선운산에는 환경부 멸종위기식물 2급 진노랑상사화의 국내 최대 자생지가 확인되고 있어 그 가치가 굉장히 높으나, 상사화와 진노랑 상사화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 개체수도 적어 앞으로 자생지 보존과 함께 선운산 입구에도 식재를 확대하여 곶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설

전북발전 행보 구체적이어아

전북도의 발전 행보가 구체적이어아겠다. 지역 발전을 방해하는 국내의 다른 지역 무위험들이 마구 존중하고 있는 까닭이다. 저들은 국내 보수 언론들을 통해 가끔 운운분부를 마구 때리더니 이제 웬 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미국 언론까지 동원해 조롱하고 있다. 참으로 허접스러운 짓거리가 아닐 수 없다.이런 때일수록 전북도는 이를 악물어야 한다. 방어만이 아니라 응전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저번에 전북 지역의 1인당 총소득이 전국 꼴찌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요구와 함께 지역 경제의 약화를 염려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 말이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목표를 보여야겠다. 현안들 중에는 구체적인 작업이 없이 세월만 보낸 것들이 적지 않다. 전북도는 발전 의지를 더욱 힘차게 다져야 한다. 도민의 요구를 정부의 현안으로 끌어올려 반드시 성취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지금 전북도에겐 뚜렷한 행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슨 현안이고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지금 지역 발전 사업의 맨 앞장에 있는 새만금만 해도 그렇다. 내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자면 답답하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이 도민의 소득과 연결이 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미미하다. 지역 개발이라는 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있는데 도민의 바램이 바램이 아니라 그쳐서는 안되겠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웰빙 고장이라고 여러 차례 공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공표가 얼마나 실효가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웰빙 고장이나 아니라는 소득이 말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1인당 총소득이 해마다 떨어지고 전국 꼴찌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전북도의 노력이 소득과 관련해 영향력이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다면 그것은 무가치하다. 거듭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지역 발전 행보를 구체적으로 펼쳐 보여야겠다.

전북 대도약 시대 일자리로 말해야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는 도지사의 예전 발언에 대해 다시 언급하곤 나날이다. 도지사의 그 발언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때 도지사는 변화도 말했었다. 그것은 일반 도민들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여기 다시 짚어볼 게 있다. 전북 대도약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늘 요구하는 바이지만 전북 대도약 시대는 일자리로 증명해야 한다.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전북 대도약의 성격을 정립해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을 먹여살릴 기재주로 농생명산업을 꼽았는데 그것은 농도 전북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였을 터이다. 그리고 많은 부가가치를 지닌 블루오션이라 판단했기에 그랬을 터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전북도는 대도약을 위해 농생명 분야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많은 힘을 투입해야 한다.

언제나 일자리 창출은 최고 가치가 돼야한다.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평소

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했다.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 유입도 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다.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전북의 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자존감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도는 탄소산업에도 눈길을 계속 주어야겠다.

탄소소재는 자동차, 항공, 조선, 기계, 건설, 의료 등 그 응용 범위가 넓다. 전기자동차와 자율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북도가 의료기기 타킷 부품에도 눈길을 둔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항공기 원료 복합재 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에도 참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 해당 업계의 기대가 클 터이다. 도민들은 우리 전북이 탄소산업에 관련한 한국 최고의 선두주자가 될 바라고 있다. 처음부터 약속했던 그대로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있음을 도지사과 고위 관계자들은 인식해야만 한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독자제언

추석 귀성길, 음주운전 절대 금물

한가위 추석 명절,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 언제나 마음이 들뜨기 마련이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지인들을 만나 오고가면 술 한 잔 기울이다 들뜬 마음에 '이정도 즐기야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평소 음주교통사고 비율은 12.2%인데 비해 추석연휴 기간 음주사고 비율은 15.6%로 올라갔다. 또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도 평상시(2.67명) 보다 추석연휴기간(3.09명)에 15.7%가량 높게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운전을 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 다른 사람들에 게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된

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추석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 교통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석 연휴기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자리에 참석할 경우, 처음부터 차를 갖고 오지 않음으로써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차량을 갖고 갔을 때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명절이라고 안일하게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절제하며 이번 추석엔 아무런 인명사고 없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넉넉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

이서우 김제경찰서 경무과 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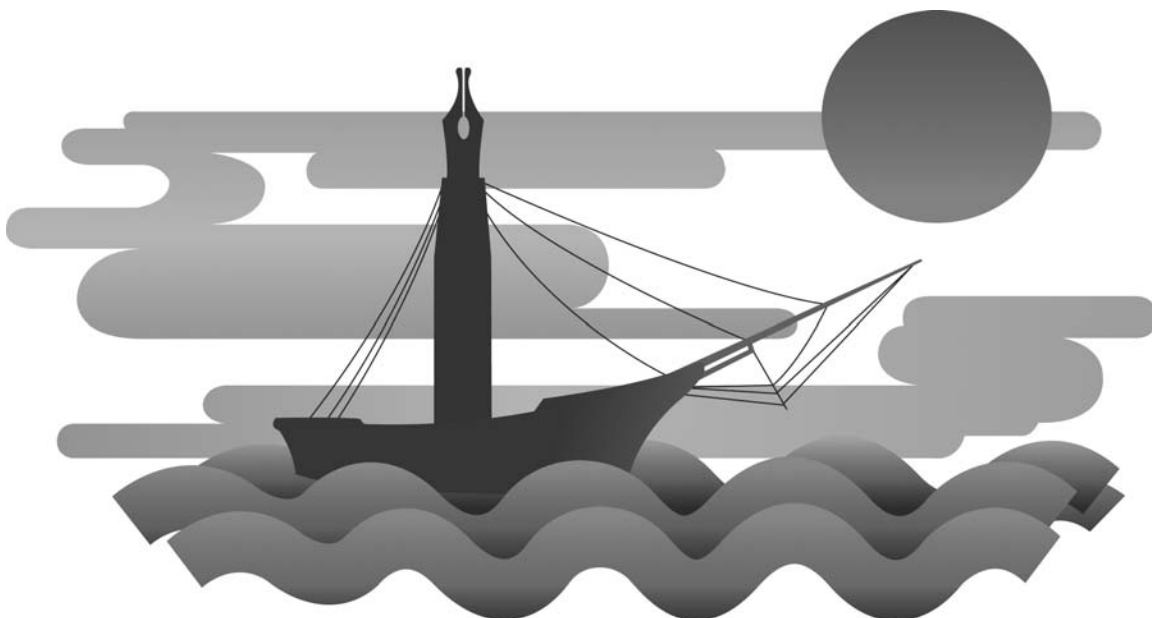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살아만 있어다오”



필리핀 벵게트주 이토곤 시의 광부 합숙소 산사태 매몰 현장에서 최근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산사태로 광부와 어린이 등 수십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